

별첨 2

이복현 금융감독원장, 태국 중앙은행 총재 면담 - 양국간 금융감독 현안 및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 -

- 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'23.5.8.(월) 태국 중앙은행(BOT*)을 방문하여 세타пут 수티윌트나르풋 총재와 면담을 실시

* Bank of Thailand

- 금번 면담을 통해 양국의 금융감독 현안에 관한 견해를 교환하고, 양 기관간 보다 발전적인 관계 형성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

☑ 일 시 : '23. 5. 8.(월) 10:00 ~ 10:45

☑ 장 소 : 태국 중앙은행

☑ 참석자 : (금융감독원) 이복현 원장

(태국 중앙은행) Sethaput Suthiwartnarueput 총재
Tharith Panpiemras 금융정책 부총재보
Siritida Panomwon Na Ayudhya 지급결제 부총재보

- ☐ 이복현 원장은 최근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태국 금융시장 동향 및 금융회사 건전성 이슈 등과 관련하여 BOT의 적절한 대응에 대해 높이 평가

- 아울러, '22년부터 BOT가 적극 추진중인 금융시장의 디지털화, 서민층의 채무 재조정 추진 방안 및 ESG활성화 등에 큰 관심을 표명
- 특히, 핀테크 감독 등에 있어 K-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, '금융부문 및 금융서비스 혁신 등에 대한 포괄적 협력 양해각서*(20.9.)'에 따라 태국 진출을 희망하는 K-핀테크 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

* 금융위원회·금융감독원-태국 중앙은행 간 포괄적 협력 양해각서

- 세타풋 총재는 이복현 원장의 태국 금융시장에 대한 관심과 방문에 감사의 뜻을 표명하였으며,
 - 최근 BOT가 전격적으로 추진중인 인터넷 은행 인허가 및 감독 등과 관련하여 한국의 경험 및 사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
 - 이에 대해 이복현 원장은 한국의 경험상 인터넷 은행이 시장에 신선한 경쟁 유인으로 작용 가능하며, 국민들에게도 편의성 및 접근 가능성 제고 등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평가
-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전조영 공사도 함께 참석하여 금감원과 BOT간 향후 협력 관계 강화에 있어 매개체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<http://www.fss.or.kr>)